

“광주일고 학생들이 ‘유신 철폐’ 대규모 시위 벌였다”

박정희 정권 대학생 시위 주도 속 네차례 시위로 대규모 제적·수감 광주일고 시위 주역 27명 증언록 만들어 내년 11월까지 출간하기로

광주의 고등학생들이 1974-1975년 박정희 정권 하에서 ‘유신 헌법 철폐’ 운동이 일어날 때 4차례에 걸쳐 시위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전남대·서울대 등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일어났다고만 알려진 것과 달리, 광주의 고등학생 또한 수 차례 시위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황광우·정해진 작가를 비롯한 광주일고 50~51기 학생들이 이달부터 회고록 ‘학생탑 아래에서’ (가제) 집필 작업을 시작하면서 재조명 받고 있다. 회고록은 1974-1975년 광주에서 시위를 일으켰던 주동자 27명의 경험을 모은 책으로, 내년 11월 학생의 날에 맞춰 출간하는 것이 목표다.

황 작가 등에 따르면 당시 전국 고교 가운데 광주일고와 서울의 경기고, 대광고, 신일고를 중심으로 ‘유신 헌법 철폐’ 목소리를 냈다. 다만 기존에는 이들 학교에서 시위 움직임을 보이자 조기 방학에 돌입한 사실만 알려졌다.

이 중 광주일고는 지난 1975년 5월 1일 개교기념일에 맞춰 40여명 학생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려다 하루 전날 발각돼 무산됐으며, 주동자 16명이 제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광주일고 학생들은 사실 1974-1975년 알려지지 않은 시위를 세 차례 더 일으켰다고 밝혔다.

1974년 10월 21일에는 2, 3학년 학생을 주축으로 교내 시위를 벌였다. 운동장에 모여 ‘유신 헌법 철폐’, ‘군사 독재 물러가라’, ‘언론 자유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쳤으며, 이후 정문으로 뛰쳐나가려 했으나 교사와 경찰에 제지당했다. 시위 이후 주동자로 몰린 지병주·이항규씨가 경찰서로 연행되고 무기정학 조치를 받았다.

같은 해 11월 15일에는 총장실에서 두 번째 시위를 벌였다. 박석무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의 동생인 박석면씨 등 6명이 주축이 돼 100여명이 운집해 총장실에서 가두시위를 했다. 이들은 총장로파출

소앞을 지나 도청 앞까지 행진했으며,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학생들의 행진을 저지했다. 이 시위로 손호상·박석면·신민호씨 등 3명이 연행됐는데 광주일보 1974년 11월 15일자 지면에 ‘광주일고생가

두데모’ 제하의 기사로 보도됐다. 이듬해 4월 15일에는 인혁당 사건, 광주일고 출신 김상진 서울대생 학복자살사건 등을 계기로 운동장에서 김상진 열사 추모식을 열었다. 주동자로 몰린 박석면씨는 제적됐는데, 학생들은 이 조치에 반발해 5월 1일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다.

이런의 과정에서 광주일고 학생 17명이 제적 및 퇴학 처분을 당했으며, 3명의 학생이 투옥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적당한 학생들은 ‘중졸’ 신분으로

검정고시를 보거나 진학을 포기하는 등 피해를 입었으며, 1994년이 돼서야 광주일고 명예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다.

황광우 작가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교생 유신 반대 시위가 발생한 곳이 바로 광주인데, 이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며 “광주 고등학생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계승하기 위해 꼼꼼하게 회고록을 정리하고 숨겨진 역사를 기록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이한열 열사 36주기 추모식 '제36주기 이한열 열사 추모식'이 5일 광주시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가족과 내빈 등 추모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추모객들이 열사의 묘소에 헌화하며 묵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안교육기관 인건비 지원 조례 수용기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5일 “광주시의회가 지난달 14일 통과시킨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청, 시의회 및 시민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슬기로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표한 데 대해선 “예산 확보가 불확실하고, 지방보조금법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상존했기 때문”이라며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전국적 사안인 만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부 등과 논의해 법률의 재개정 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시청에는 예산 지원과 시의회에는 예산 지급의 법률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귀순 의원이 발의한 광주 대안교육기관 조례는 교육감이 대안교육 학생의 교육 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나 교육청은 ‘상위법과 위배된다’며 부동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시교육청은 조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비 지원을 근거로 인건비 등을 지원할 경우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실제 광주교육청은 대안교육 프로그램과 위탁 운영을 위해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민가가 대안교육기관에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4억50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은 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수요자 중심 교육을 실시하는 사설·법인 또는 단체다. 광주에는 모두 23개 대안학교가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日 오염수’ 면죄부 주는 IAEA 보고서 신뢰 못해”

광주·전남 환경단체 성명

광주·전남 환경단체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전 오염수 방류 국제 안전기준 관련 최종 보고서’에 대해 ‘신뢰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전남지역 2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전남 공동행동’(공동행동)은 5일 성명을 내고 “IAEA 검증은 국제사회의 신뢰와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며

서 일본의 해양투기 포기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IAEA의 검증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요청한 검토사항만을 검토한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IAEA는 검사과정에서 방사선 방호 국제표준 기본원칙(정량화 원칙·해로움보다 이로우며 커야한다)조차 적용하지 않고 원칙은 일본 정부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책임까지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에서 일본 도쿄전력이 시행한 평가를 기본 근거로 삼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IAEA가 보고서에 ‘도쿄전역에서 사용하는 해양분산 모델의 결과에 따라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물이 바다로 배출됐을 때 국경 너머에 주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기재한 것은 도쿄전력의 주장을 선불리 옮겨 적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IAEA는 엄격하게 오염물질 투기를 제한해야 함에도 일본에 면죄부만 준 꼴”이라며 “처음부터 오염수 투기라는 답을 정해 놓고 진행한 IAEA의 검증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와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내달 폐쇄 노사 합의

공장 폐쇄를 앞두고 갈등을 빚어온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노사가 8월 초 장성공장의 문을 닫기로 합의했다.

고려시멘트와 고려시멘트 노동조합은 “교섭한 결과 합의안을 도출했고 오는 31일을 마지막으로 공장 가동을 마친다”고 5일 밝혔다.

노사는 퇴직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에 대해 22개월 급여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측은 희망퇴직자를 접수받고 있고 정규직(77명)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120여명 모두 퇴직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자중 10여명은 영암 대불산단에 있는 고

려시멘트 2공장에 재취업을 결정해 사측은 이들에 대해서는 고용을 승계한다는 입장이다.

장성공장의 남은 원자재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설비 등은 영암 2공장으로 이전한다. 8월 초 공장이 문을 닫으면 장성공장 부지는 개발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고려시멘트 측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1973년 준공한 장성공장을 폐쇄하기로 했고 지난달 11일 노동자 77명에 대해 전원 해고 통지를 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13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사측에 해고통보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